



인력

# 외국인농업연수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계획



이 현 주 팀장  
농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 1. 회 고

지난해 농축산업 분야에 외국인농업연수제도가 처음 도입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농촌에 다소나마 외국인의 일손을 빌려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야만 했던 시설원예, 양돈, 양계 분야의 농업인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매웠던 농업인들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한시름 덜게 되었다.

우리 농협은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서둘러 인력도입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였고, 인력 송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농업연수생을 신청한 농가에 연수생이 조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

력을 기울였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인력정책과)는 사업시행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법무부는 농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 출입국관리소에 시달하였으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가가 납세고유번호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였다.

그러나 정작 농가로부터 외국인농업연수생 활용 신청을 접수한 결과 기대했던 만큼의 신청성과를 얻지 내지 못하였다.

금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은 농축산 농가로 하여금 농업연수생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외국인 농업연수업무 담당자 일동은 농가가 본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인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 2. 농업연수생 신청접수 및 도입 현황('03. 12. 31 현재)

### ■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시설원예	시설버섯	미나리	젖 소	한육우	양 돈	육 계	산란계	사슴	말	계
신 청	농 가	104	23	41	42	9	179	2	29	1	3
	연수생	248	86	150	63	18	349	6	91	2	8
도 입	농 가	68	16	39	28	8	126	2	20	-	3
	연수생	207	63	149	50	24	336	6	80	-	8
* 국가별 도입인원 : 우즈베키스탄(751명), 몽골(172명)											
* 농가신청연수생 1,021명 대비 923명 도입으로 90% 달성											

- \* 국가별 도입인원 : 우즈베키스탄(751명), 몽골(172명)
- \* 농가신청연수생 1,021명 대비 923명 도입으로 90% 달성

### ■ 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부 산	대 구	인 천	울 산	계
농 가	87	16	12	54	13	11	26	12	23	24	5	25	2	310
연수생	267	54	35	165	39	32	57	22	49	91	13	92	7	923

## 3. 농가(농업경영체) 및 연수생 관리

농업연수제도의 기본틀을 마련한 후 연수 협력단은 전국 9개 시도에 현지출장하여 농가와 계통농협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업전문지에 홍보 및 안내광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업연수생을 농가에 배정하기 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연수생 활용에 따른 실무관리, 연수생의 인권보호, 송출국가에 대한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수생배정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농업연수생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농업연수제도에 만족하는 농가가 80%이상 나타났으며,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연수생과의 언어소통을 꼽았다.(농가방문(144농가), 농가 및 연수생 애로상담(253건))

### 농가방문시 연수생관리에 소홀한 부문

- 연수수당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연수생수당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불비)  
⇒ 필히 연수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에 입금하시기 바람  
⇒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지급 및 공제 내역을 설명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하여 연수생으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함.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미가입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연수생 사고 발생에 대비
- 연수생교육 미실시  
⇒ 연수생을 인수하면 작업장 안전수칙, 작업방법, 지역생활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



## 4. 농가편익을 위한 농협의 활동

### 가. 외국인 농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행

개별 농가가 직접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정연수생의 사증 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협이 대행하여 동 인정서를 신청하고 수령함으로써 농가에 직접적인 편의 제공.

### 나. 외국인 농업연수생에 대한 신원보증 대행

농업연수생 활용농가는 개별적으로 농업연수생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나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협이 일괄하여 신원보증함으로써 연수생 활용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RISK)과 수수료 절감.(신원보증수수료 절감 추정액 1억 5천만원 : 30,000원×5,000명)

## 5. 2004년 추진계획

금년 8월부터 농축산업 분야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병행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농업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농가가 농업연수생을 활용하는데 보다 유익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 2004년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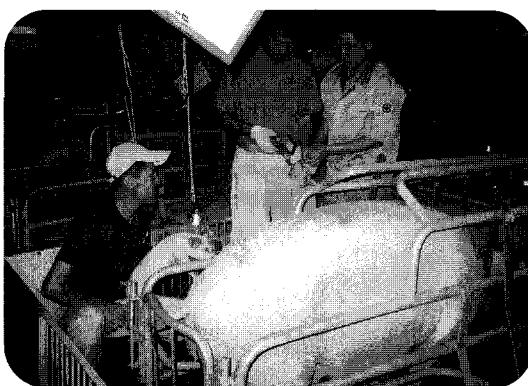
- ▣ 농업연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  
⇒ 국가기관이 할 수 없는 농협 고유의 농가서비스 확대
- ▣ 송출기관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가. 외국인농업연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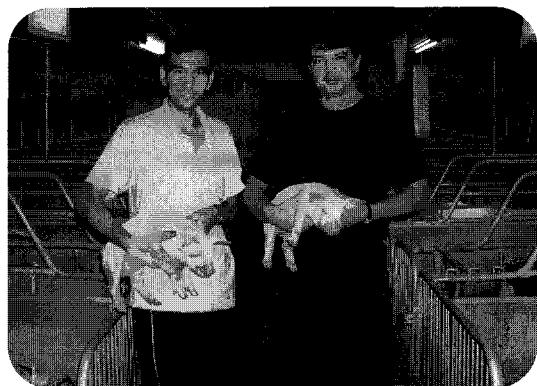
농업부문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운용실태를 분석 검토하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연수생이탈 등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 나. 송출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

송출기관의 연수생 교육상황 등을 수시점



▲ 외국인 농업연수생들이 모돈과 자돈을 들보고 있다.



▲ 자돈을 들고 있는 외국인 농업연수생들

2004년도에는 외국인 농업연수제도가 유익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을 하고자 한다. 농업부문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운용실태를 분석 검토하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연수생이탈 등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송출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업연수생 활용가능 대상업종을 확대 및 신청자격요건 완화 등 외국인 농업연수생 수요확대를 추진하고 농협 계통조직을 통한 농업연수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검하고, 송출기관 선정시 연수생교육 및 이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철저한 연수생관리를 유도

#### 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수요확대 추진

농업연수생 활용가능 대상업종 확대, 신청자격요건 완화, 연수생활용 가능 농가 신규발굴 등 농가가 손쉽게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라. 농협 계통조직을 통한 농업연수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이 연수사업관리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체제를 탈피하고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와 농가편의 도모

#### 6. 맷음말

지난해 처음 외국인농업연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농림부)와 농협은 기존의 산업연수제도가 안고 있었던 송출비리, 연수생 이탈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방지한 채 외국인농업연수생을 국내에 들일 수 없었기에 입국시기가 다소 늦추어지고 우리 농축산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연수생을 배정하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농업연수생 도입도 2년차에 접어 들었다. 이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보다 훌륭한 외국인농업연수생이 전국 방방곡곡에 배정되어 우리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해를 맞아 농축산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양동

**샘처럼 솟는 힘, 돼지고기 먹은 힘**